

##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최 명 민

(천안대학교)

### [요 약]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은 바로 자기실현과 자존감 증대와 같은 내적 변화와 더불어 정상화 및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자원봉사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임파워먼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신장애인 뿐 아니라 봉사활동의 장인 지역사회의 봉사 준비과정을 체계화하고, 둘째, 정신장애인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일반인 협력자를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시설거주 정신장애인 13명과 이들의 협력자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10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정신장애인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이미지 측면에서 임파워먼트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시민으로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협력자들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즉,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그리고 지역정신보건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봉사 대상자로 머물러온 정신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봉사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일반인의 태도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실천현장의 상황에 맞게 활용되어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임파워먼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 이 연구는 2003년 천안대학교 지방대학육성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 1. 서론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이를 시행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는 서비스 대상자로 각인된 정신장애인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신장애인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서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구도에서 후자 쪽에 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정신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류에서 벗어난 비생산적인 존재로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일반적인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사회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개인의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영역에서 재활프로그램과 실제 생활 사이의 괴리에 대한 문제다.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은 이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재활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치료, 증상 및 인지기능손상의 감소, 지속적인 무능력 극복을 위한 기술훈련, 생활환경 변화와 환경적 지지를 통한 무능력의 교정, 그리고 사회적 불리 극복 등의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김기태·황성동·최승식·박봉길·최말옥, 2001: 291). 그러나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치료기관과 시설에서 증상을 치료받고 자신의 무능력을 교정하기 위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와 훈련을 통해 향상된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정신장애인 중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능수준이 높은 소수에 불과하여, 직업을 가질 정도의 기능 수준을 갖추지 못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일’과 ‘역할’로부터, 즉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익힌 부분을 현실에서 직접 실천해 보고, 직업의 유무를 떠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좀더 융통성 있는 활동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신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상호작용 부족에 대한 문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정신장애인과 접촉의 경험이 이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tein, C. H., M. Ward, and D. A. Cislo, 1992: 523; Brockington, I. F., P. Hall, J. Levings, and C. Murphy, 1993: 93; 박경희, 1994; 이종남, 1994: 82-87; Wolff, G., S. Pathare, T. Craig, and J. Leff 1996: 191; Penn, D. L., S. Kommana, M. Mansfield, and B. G. Link, 1999: 437; Roth, D., M. M. Anthony, K. L. Kerr, and F. Dowine, 2000: 234; 류승아, 2001: 47-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순한 장애인의 접촉 여부보다는 어떤 접촉이었나 하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서동명, 1999: 64-65), 일반인들과 정신장애인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변화 및 불리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가치 있는 역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재활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일반인과 정신장애인이 상호 긍정적인 경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정신장애인의 자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변인의 태도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임파워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정신장애인 : 자원봉사의 대상에서 주체로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원봉사 인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자원봉사의 주요 인력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아동이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김범수·권선지·손병돈·신승연·신은주·이종복·이혜경·최현미·정용충·정옥희, 2001: 159-186), 전통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노인과 장애인도 자원봉사 인력으로서의 가능성이 고찰되고 있다(권순기, 1998; 류기형·남미애·박경인·홍봉선·이경희·장중탁, 1999: 270-295).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 외에도 자원봉사가 갖는 개인적 효과는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클라이언트 대상이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솔로몬과 바우어즈는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자에게 개인적 만족감, 능력개발 및 발전, 대인관계의 활성화,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경험, 그리고 건강한 삶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에서 재인용: 21-22). 특히 장애인과 같이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의 범주에 속한 대상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타인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小笠原慶彰(1994, 김기태·이경희, 1999: 148에서 재인용)은 물질적 원조든, 대인적 원조든 간에 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수용하는 경험과 수용당하는 입장을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은 그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조를 받는 측과 제공하는 측의 괴리를 메울 수 있으며, 양자에게 상호 도움을 주고 그 개인과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관용과 이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장애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실현해 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김기태와 이경희(1998: 20)가 장애인 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장애인 중 75.7%가 자원봉사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자원봉사의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따라서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실태를 보면 신체장애인 중심의 이동봉사나 시각장애인 중심의 생활훈련 및 점자교육 등과 같이 신체장애인의 자원봉사에 국한된 것이 대부분이다(류기형 외, 1999: 289-290).

이렇듯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은 실질적인 기능상의 제한 뿐 아니라 ‘장애인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자타의 인식에서 기인되는 면이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과연 그동안 서비스의 대상자였던 정신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쉽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재활에 성공하여 직업을 가질 정도의 경우라면 이런 의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는 재활-질병, 정상-비정상, 능력-무능력, 독립-의존, 통합-고립의 잣대를 고수하는 사회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각 안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어떤 역할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특수한 욕구가 있는 개인으로 인정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부터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핀폴드(Pinfold, 2000: 209-210)는 독일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에게는 직업적 지위와 같은 어떤 절대적 위치보다는 고립과 통합, 독립과 의존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지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핀폴드는 직접 자원봉사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중간 지점의 대안으로서 자원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반드시 재활에 완전히 ‘성공한’ 정신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즉,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모든 기능이 반드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가능성 여부나 능력의 유무라는 양 극단의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신체적인 기능이 자유롭다는 점, 그러나 대인관계나 심리적 동기,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봉사내용 선택과 사전훈련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단, 이런 요소들은 일률적이거나 획일적일 수 없으므로, 각 정신장애인 개인이 갖고 있는 유능한 측면과 무능력한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도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2)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임파워먼트

솔로몬(Solomon, 1976)은 개인 또는 집단이 기술이나 자원의 부족과 같은 직접적 장애로 인해, 그리고 선입관, 낙인, 차별, 유형화와 같은 간접적 장애를 동일시함으로써 인해 파워를 결여하게 되어 결국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서적, 지적, 기능적, 물질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회복지에서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란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 집단, 지역사회 의 잠재적 파워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개인들은 내적으로 자기효능감과 통제력이 증가되고, 이렇게 나타난 개인의 내적 변화는 사회적 의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의식의 변화는 다시 개인의 사회참여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임파워먼트란 개인의 내적 변화를 사회정치적 수준으로 연계하는 실천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화, 2003; 34). 여기서 무력감을 경험하는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대입해 보면,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는 결국 정신장애인의 개인 내적인 변화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기존 문헌들을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임파워먼트의 개인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존감, 자기통제감, 도전 의식, 목적의식, 이타성, 책임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최명민, 2002: 5-8). 자원봉사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어 왔다. 여러 문헌들에서 자원봉사는 성취감, 자기만족감, 자기결정권, 사회로부터의 인정, 이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이를 통해 자기실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김명철·김한경·문진영·손규태·이기옥·이창호·정원오, 1995: 6-9; 김범수 외, 2001: 24-33; Canfield, J., M. V. Hansen, A. M. Oberst, J. T. Boal, L. Lagana, and T. Lagana, 2002). 장애인 역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인간관계 확장 및 삶의 보람 획득, 역할 수행을 통한 자기가치감 증대,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탈피 등의 개인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류기형 외, 1999: 286-289). 특히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매우 중요한데, 巡靜一(1994, 김기태·이경희, 1999에서 재인용: 148)은 생기고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역할을 맡는 등 적극적 사회참여가 필요하며, 그 중요한 형태 중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의식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상화는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mainstream)에 동참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양옥경, 1996: 26).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Social Role Valorization : SRV)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가치 절하된 사람들의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역할을 찾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동철, 1999: 39). 또한 정신장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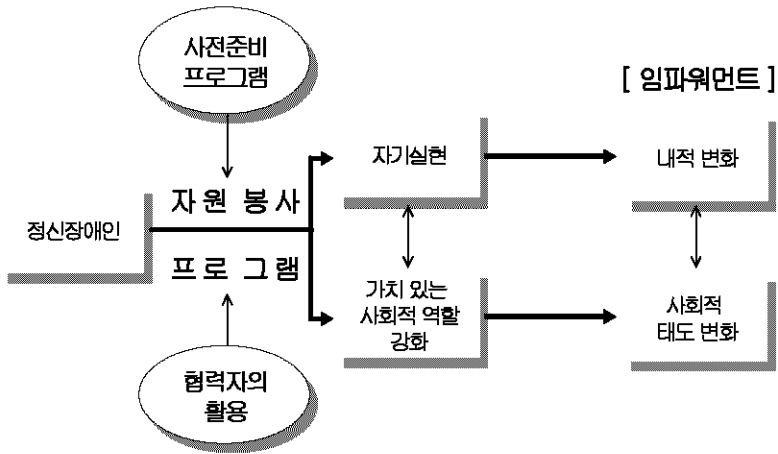
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적 인식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Stein et al., 1992: 523; Brockington et al., 1993: 93; 이종남, 1994: 82-87; Wolff, 1996: 191; Rousseau, A. and D'Man, A. F., 1998: 803; Penn et al., 1999: 437; Roth et al., 2000: 234). 또한 사회복지사나 이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 정신보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박경희, 1994; 김미옥, 2002: 117-118; 김미옥, 2003: 158). 그러나 단지 접촉유무만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경험의 질이 어떤 것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종남, 1994에서 재인용: 34-38; 서동명, 1999에서 재인용: 71-73).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자원봉사를 통해 일반인과 교류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일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환자 또는 보호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수혜자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건강 소비자 또는 생존자이자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이다(Ellison, 1996).

결국 기존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정신장애인은 자원봉사라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3)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정신장애인을 임파워먼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신장애인이든 당장 자원봉사에 투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지만, 능력과 지식의 부족이나 장애 자체가 실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김기태·이경희, 1998). 그러므로 이들의 자원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조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성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의 준비단계를 설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에 협력자를 활용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본 프로그램의 기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임파워먼트

(1) 자원봉사의 준비단계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이다.

<표 1>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단계별 개요

단계	구분	내용	고려 사항		
I 준비	1	사정	자원봉사자로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정	개별 및 집단의 역량, 욕구, 한계 사정	
	2	자원 개발	정신장애인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장소 및 자원 탐색, 발굴 및 계약		지역사회와 접촉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하고 사정을 통해 평가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탐색
	3	훈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숙지하고 익혀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
	4	실습	외부 봉사 전 원내에서 자원봉사 실습		훈련과 실제 활동의 교각역할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II	자원봉사	봉사기관별로 준비된 구체적 매뉴얼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진행 * 일정(3~4시간 소요): 사전모임 → 봉사장소로 이동 → 인사 및 당일 세부활동 할당 → 봉사활동 → 정리 → 이동 → 평가	스케줄 및 실제 활동 관리 보조자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일반인 협력자 참가	
III	평가 및 종결	전체 과정 및 목표달성 평가 및 마무리	다면적 평가 수행		

이 중에서 준비과정을 하나의 주요 단계로 설정한 것은 실제 봉사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신장애인을 자원봉사자로서 준비를 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준비단계는 정신장애인을 자원봉사자의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병리적인 측면보다도 봉사자로서의 보유 능력과 욕구에 초점을 두게 되며, 각 개인으로서 뿐 아니라 봉사활동 집단으로서의 사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역사회 봉사기관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에 비해 봉사자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용이한 과업은 아닐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봉사자로 받는 기관 쪽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부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 협조 및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자이자 홍보가로서, 그리고 옹호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봉사 기관이 결정되면 봉사내용도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표 2>에서는 <표 1>에서 상세히 기술하기 어려웠던 훈련 및 실습단계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봉사대상자와의 인사 및 대화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었으며, 봉사대상자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응대법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기술훈련 등을 활용하지만, 자원봉사라는 구체적 활동에 초점을 두며, 곧 실제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음은 훈련이 실제 봉사로 연결되기 전, 훈련과 실제 상황의 차이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내 상황을 활용하여 구체적 활동을 실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실제 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훈련 및 실습단계의 세부 사항

단계	회수	제목	내용	시간	방법
훈련	1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자원봉사의 개념 이해 및 자원봉사자로서 갖 추어야 할 자세	60분	강의
	2	인사하기	자원봉사활동시 여러 사람들과 만났을 때 상황에 따른 인사법	60분	역할극, 사회기술훈련
	3	대화나누기	봉사대상자와 자연스러운 대화 나누는 법	60분	
	4	응대하기	봉사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	60분	
실습	5	원내 봉사	거주 시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및 상황에 접근하여 봉사활동 시행	각	정리정돈, 식사보조 대화 등
	6			120분	

(2) 협력자(Partner)의 활용

본 프로그램의 특성 중 하나는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의 협력자로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와 일반인 봉사자가 짝을 이루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렇게 협력자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역할모델로서의 효용성이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원봉사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봉사활동 자체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당면하게 되는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대처 모델도 될 수 있다. 둘째는 정신장애인과 일반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과 일반인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일반인이 정신장애인을 동료로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사회 체계를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한 팀이 된 집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좀더 개방적인 자세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정신장애인은 이런 기회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단, 이와 같은 협력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협력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인식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둘째는 협력자들이 우선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다면 적절한 준비교육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절대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보다 앞서거나 혼자 도맡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력자로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가 원활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역할 시범을 보일 수는 있으나, 대신해 주거나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는 봉사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강화하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력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칭찬하고 즉석에서 강화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임파워먼트의 변화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개인의 내적인 범주를 넘어서, 좀더 큰 차원의 임파워먼트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봉사과 관련된 주변인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자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가 프로그램 전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사전·사후 임파워먼트의 변화량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임파워먼트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프로그램 협력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프로그램 사전에 비해 프로그램 사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 2) 연구의 대상

연구가설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도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 13명과 이들에 대한 비교집단인 정신장애인 13명, 총 26명의 정신장애인이고, 둘째는 태도조사의 대상인 자원봉사활동 협력자 10명이다.

우선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는 충남에 위치한 한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 중 자원봉사에 의지가 있고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의해 치료상태, 의사소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설정된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의 정신장애인과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들과 기능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13명이었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배치과정에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무작위적 표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라고 할 수 있겠다.

자원봉사협력자는 충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중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한 10명이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기능 수준과 작업내용에 따라 정신장애인 1~3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되었었다. 이들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구성해야 했으나, 모집 기간 중 통제집단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 하였다. 또한 좀더 유용한 태도 변화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봉사협력자보다는 봉사를 받은 수혜자들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봉사대상자들이 치매나 정인지체와 같이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에 반영되지 못 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또는 2회씩 진행되었으며, 실제 봉사활동은 정신장애인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장애인시설(비인가)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각 2회씩 총 4회가 이루어졌다. 참고로 본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한 대상에 관한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lt;표 3&gt; 봉사활동 대상의 개요

봉사기관	대상자	봉사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미인가)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7명	청소, 빨래, 산책보조, 침구 및 옷장정리, 오락 등
노인요양소	치매, 중풍 등 거동 불편 노인 20명	목욕시키기, 안마, 말벗 등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자(coordinator)는 본 연구자였으며,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신장애인의 기능 및 능력 사정, 지역사회기관 접촉 및 정신장애인의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 3) 측정 및 분석방법

가설 1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석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Rogers가 1992년 개발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척도이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번역되어 신뢰도 .79로 검증되었고, 요인분석 결과 전체 28문항은 3가지 구성개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임정기, 1999). 첫째 요인은 자아존중감-효능감 및 낙관적 시각과 미래에 대한 통제력과 같은 자아 이미지이고, 둘째 요인은 무기력감-힘 등 실제적 힘에 관한 것이며, 셋째 요인은 지역사회 활동 및 자율성과 정당한 분노로 이루어진 사회정치의식으로 분류되었다.

가설 2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이다. 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동체태도척도(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 CMAI)는 1981년 Taylor와 Dear가 개발하고 이주훈, 이충순, 황태연, 한광수 및 이영문(199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이다(이주훈 외, 1996; 류승아, 2001). 이 척도는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권위주의는 정신장애인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며, 정신장애인들은 열등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하위계급으로 보며 보다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이고, 둘째, 자비심은 전문적 이론이나 과학적 치료보다는 오히려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도덕적 태도를 반영하는 온정주의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셋째, 사회생활제한은 정신장애인들은 가정과 사회에 위협을 주므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도 사회적으로 규제가 요구되며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마지막 지역정신보건 요인은 정신보건 운동의 원리를 구체화하여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과 접촉하는 것 등이 관련된 내용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이 지역 내 설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는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류승아, 2001에서 재인용: 27).

이와 같은 척도를 통해 측정된 자료 중 가설 1에 해당되는 자료는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와 사전검사의 차이 값을 구하고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와 사전검사의 차이 값을 구한 후 양자를 비교하는 방법

( $O_2-O_1 : O_4-O_3$ )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가 각각 13명씩 26명에 한하고 표집 방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방법인 독립 2표본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여 그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2와 관련된 측정 자료는 실험집단만의 전후 비교에 해당되는 것( $O_1 : O_2$ )이며, 10명이라는 소수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외에 실험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가설 2와 관련된 협력자들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적조사만으로는 이들의 태도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들의 평가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인식의 변화내용도 기술하였다. 단, 여기서는 특별한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제시된 태도척도의 하위항목에 따라 해당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 4. 결과 및 분석

###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1) 정신장애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차이 비교

다음 <표 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고,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는 모두 미혼이나 이혼, 별거 상태로서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는 현재 이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상황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진단명은 정신분열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본 시설 입소 전 입원횟수는 1회에서 5회까지 나타났다. 입소 전에는 대부분 가족과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입소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3년 7개월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lt;표 4&gt;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적사항

구분	번호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종교	진단명	입원 횟수	입소전 거주지	입소기간
실험 집단	1	여	44	초졸	미혼	기독교	정동장애	1	병원	4년
	2	여	33	대졸	미혼	천주교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4개월
	3	여	28	고졸	이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1	친척과 거주	5개월
	4	여	29	대중퇴	미혼	불교	정신분열증	4	가족과 거주	5개월
	5	남	56	중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4년2개월
	6	남	35	고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2	가족과 거주	4년4개월
	7	남	44	대중퇴	미혼	없음	정신분열증	3	가족과 거주	9년2개월
	8	여	22	중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2	가족과 거주	5개월
	9	남	23	고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4	가족과 거주	6개월
	10	남	47	중졸	미혼	천주교	정동장애	4	가족과 거주	13년7개월
	11	여	31	고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3	혼자 거주	4년5개월
	12	여	38	고졸	미혼	천주교	정신분열증	3	가족과 거주	1년6개월
	13	남	30	대졸	이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9개월
통제 집단	1	여	45	초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2	가족과 거주	4년3개월
	2	여	33	대중퇴	미혼	없음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3년8개월
	3	여	22	초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3	가족과 거주	9개월
	4	여	29	고졸	미혼	천주교	정신분열증	5	혼자 거주	5개월
	5	남	56	중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1	혼자 거주	10년
	6	남	35	중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2	가족과 거주	7개월
	7	남	31	대중퇴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2	가족과 거주	12년 8월
	8	남	51	초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2	혼자 거주	5년 9개월
	9	여	26	고졸	별거	없음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6년 5개월
	10	남	47	초졸	미혼	기독교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1년 7개월
	11	남	30	고졸	미혼	천주교	정신분열증	4	무응답	무응답
	12	여	33	고졸	이혼	천주교	정신분열증	1	가족과 거주	3개월
	13	남	31	대졸	미혼	천주교	정신분열증	4	가족과 거주	1개월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기본적 인적사항에 있어서 동질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6>이다. <표 5>에서 보듯이 성별, 학력, 결혼상태, 종교, 진단명, 입소 전 거주지의 항목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차이 비교 I

항목	구분	빈도 (%)		$\chi^2$	p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여성	7( 53.8)	6( 46.2)	.154	.695
	남성	6( 46.2)	7( 53.8)		
학력	초졸	1( 3.8)	4( 30.8)	2.444	.655
	중졸	3( 23.1)	2( 15.4)		
	고졸	5( 38.5)	4( 30.8)		
	대중퇴	2( 15.4)	2( 15.4)		
	대졸	2( 15.4)	1( 7.7)		
결혼상태	미혼	11( 84.6)	11( 84.6)	1.333	.513
	이혼	2( 15.4)	1( 7.7)		
	별거	0( 0.0)	1( 7.7)		
종교	기독교	8( 61.5)	7( 53.8)	1.543	.672
	천주교	3( 23.1)	4( 30.8)		
	불교	1( 7.7)	0( 0.0)		
	없음	1( 7.7)	2( 15.4)		
진단명	정신분열증	11( 84.6)	13(100.0)	2.167	.141
	정동장애	2( 15.4)	0( 0.0)		
입소전 거주형태	가족과 거주	10( 76.9)	9( 75.0)	3.017	.389
	친지와 거주	1( 7.7)	0( 0.0)		
	혼자 거주	1( 7.7)	3( 25.0)		
	병원 입원	1( 7.7)	0( 0.0)		
합		13(100.0)	13(100.0)		

&lt;표 6&gt;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차이 비교 II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U	Z	p
연령	실험	35.38	9.99	13.15	80.00	-.231	.840
	통제	36.08	10.32	13.85			
병원입원회수	실험	2.31	1.25	13.77	81.00	-.187	.880
	통제	2.23	1.36	13.23			
현재시설입소기간	실험	40.46	48.33	12.62	73.00	-.273	.810
	통제	46.42	49.91	13.43			

<표 6>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중 연속변수에 해당되는 항목을 비교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도 역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서 통계상 유의한 차이점이 없는 유사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자원봉사활동 협력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7>은 가설 2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협력자에 대한 기본적 인적사항의 개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여학생이고, 20대가 대다수였으며, 대상자의 40%는 정신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본인이 정신과를 이용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각각 1명씩 있었다.

&lt;표 7&gt; 자원봉사활동 협력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분류	빈도(%)	비고
성별	남	0( 0.0)	
	여	10(100.0)	
연령	21	5( 50.0)	평 균 23.00 표준편차 3.68
	22	1( 10.0)	
	23	2( 20.0)	
	24	1( 10.0)	
	33	1( 10.0)	
종교	기독교	4( 40.0)	
	천주교	1( 10.0)	
	불교	1( 10.0)	
	없음	4( 40.0)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촉 경험	자주 있다	2( 20.0)	
	때때로 있다	1( 10.0)	
	거의 없다	3( 30.0)	
	전혀 없다	4( 40.0)	
본인의 정신과 이용 경험	유	1( 10.0)	
	무	9( 90.0)	
정신과 가족력	유	1( 10.0)	
	무	9( 90.0)	
전 체		10(100.0)	

## 2)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친 영향

## (1) 정신장애인 임파워먼트에 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비교

실험집단은 자원봉사 참여라는 자발성에 대한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집단과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사전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lt;표 8&gt; 정신장애인 임파워먼트에 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비교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U	Z	P
자아이미지	실험(13)	29.54	3.28	15.46	59.00	-1.319	.204
	통제(13)	28.08	3.64	11.54			
실제적 힘	실험(12)	13.00	2.95	14.13	64.00	- .744	.470
	통제(13)	12.15	2.97	11.96			
사회정치의식	실험(12)	21.17	3.59	13.58	59.00	- .757	.478
	통제(12)	19.67	2.50	11.42			
전체임파워먼트	실험(11)	63.64	7.50	13.68	47.50	-1.155	.260
	통제(12)	59.58	4.50	10.46			

<표 8>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시행 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각 임파워먼트 항목의 평균이 조금 더 높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전에 임파워먼트 측면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통계상 유사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정신장애인 임파워먼트에 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

가설 1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에 미친 영향을 통제집단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lt;표 9&gt; 정신장애인 임파워먼트에 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

항목	집단	변화량 평균	변화량 표준편차	평균순위	U	Z	P
자아이미지	실험(13)	3.69	4.92	15.19	36.50	-2.036	.041
	통제(11)	- .82	4.79	9.32			
실제적 힘	실험(11)	- .45	2.98	11.27	58.00	-4.95	.651
	통제(12)	- .08	3.82	12.67			
사회정치의식	실험(12)	.00	3.72	11.79	56.50	-.234	.821
	통제(10)	- .30	2.36	11.15			
전체임파워먼트	실험(10)	1.70	7.29	10.40	31.00	-8.03	.460
	통제( 8)	- .25	7.03	8.38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은 임파워먼트의 하위 항목인 자아이미지였으며( $p < .05$ ), 나머지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아이미지는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정신장애인 임파워먼트 척도의 가장 강력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정기, 1999: 11, 38). 즉, 정신장애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기 인식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을 임파워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실제적인 힘이나 사



회정치적의식은 몇 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향상되기는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인들의 내적 변화가 사회적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임파워먼트의 기제라고 하지만(이윤화, 2003: 34), 이는 일정 시간과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김기태·이경희, 1998: 12), 대상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취 같은 공익적 효과보다는 개인의 만족감, 여가선용, 보다 폭 넓은 인간관계, 자기성장의 기회 등 개인적 차원의 유익함을 기대했던 것보다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관적 자기이미지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한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좀더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자원봉사의 대 사회적인 의미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이 일반인 협력자의 태도에 미친 영향

정신장애인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했던 협력자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는 태도 변화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측정한 항목들을 분석한 것은 <표 10>과 같다.

<표 10> 협력자의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Z	P
권위주의	사전	29.10	1.73	-2.144	.016
	사후	31.90	2.73		
자비심	사전	41.70	2.26	-2.106	.018
	사후	44.20	2.82		
사회생활제한	사전	29.70	3.59	-2.494	.007
	사후	34.70	2.67		
지역정신보건	사전	40.30	6.22	-1.718	.043
	사후	44.40	2.91		
전체 태도	사전	140.80	10.49	-2.449	.007
	사후	155.20	5.98		

여기서 보듯이 가설 2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체 태도 뿐 아니라 하위항목인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이라는 하위항목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즉, 정신장애인과 같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나 이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감소시키고, 이들에 대해 좀더 온정적인 태도와 지역사회에 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루소와 드만(Rousseau, A and A. F. D'Man, 1998: 803)이나 김미옥(2002: 117-118)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자원봉사와 달리 여기서는 이들과 ‘함께’ 다른 대상에게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단, 앞에서도 밝혔듯이 가설 2는 통제집단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된 실험집단만의 결과이므로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식변화를 나타내 주는 진술을 제시하였다. <표 11>은 <표 10>의 항목을 참조하여 참여자의 관련 진술을 구분해 본 것이다.

<표 11> 피정 및 결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협력자의 태도변화에 대한 진술

항 목	내 용
권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에는 정신장애인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랑 정말 다를 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li> <li>· “처음에는 느끼지 못 했었는데, 000가 정신장애인이라고 나이가 많은 분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안 좋게 느껴졌어요.”</li> </ul>
자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 오기 전에는 솔직히 떨리고 겁도 났었는데, 같이 봉사를 해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여리고 착한 분들인 것 같아요.”</li> <li>·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중에 차에서 00씨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li> </ul>
사회생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분들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분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족이나 사회가 좀 더 받아준다면 충분히 같이 살아갈 수도 있을텐데...”</li> <li>· “00씨는 우리보다도 더 능숙하게 하셔서 놀랐어요. 오히려 00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li> </ul>
지역정신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에 있는 분들이라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li> <li>·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이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리감이나 편견이 없어질 것 같아요.”</li> </ul>

이러한 결과는 다음 몇 가지 요인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협력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를 정신장애인으로서는 자원으로 보지 않는 자원봉사자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이들의 문제점보다는 역할수행 및 능력발휘에 초점을 둔 활동을 경험하였다는 점, 그리고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동료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접촉의 기회가 일반인의 태도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주장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변화는 앞으로 현장에서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전공생의 경우 일반인보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태도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통 일반시민을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4)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성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프로그램 실제 운영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매 회마다 기록했던 프로그램의 일지를 각 단계별로 분석, 정리한 것이다.

우선 준비단계 중 사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약물 부작용 여부, 잔존능력, 욕구 및 관심사,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일상생활수행 기능 등이 고려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사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대상자들의 상태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매회 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융통성 있게 업무 분담을 조정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사정과 거의 동시에 지역 관공서나 사적인 인맥을 통하여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을 탐색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프로그램에 협조를 구하였다. 우려했던 것에 비해 정신장애인 여부를 불문하고 봉사의 손길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꽤 있었으며, 특히 비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 중 정신장애인들의 욕구와 기능을 고려하면서 좀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1곳과 노인요양시설 1곳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한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중에 기관이 변화되는 것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봉사의 맥락이 단절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장단점을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봉사기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관이 결정된 후에는 봉사활동 시작 전까지 상호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스케줄과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를 나가기로 한 정신장애인들에게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훈련이 실시되었다. 일반인 협력자들은 이 단계에서부터 같이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여기서는 강의와 역할극 및 사회기술훈련 등이 시행되었는데, 대상자들은 이전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왔지만 실제 봉사활동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긴장감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이였다. 원내 봉사를 통한 실습은 절기 상 대규모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진행되어 여기에 참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실습과정에서 나타난 각 개인의 기능은 재평가되어 실제 봉사활동 시 고려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속한 상황을 활용하여 실습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활동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 원외 봉사는 복장과 위생에 대한 준비부터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목욕, 이발, 화장 등으로 새로 단장하였으며, 다소 긴장된 모습이였다. 이런 위생과 외모에 대한 부분은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자세 뿐 아니라 봉사대상자에게 주는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봉사활동 전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생각되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는 동절기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산책보조 등 야외활동에 대비한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봉사기관을 오고 가는 도중에 차량 안에서 이뤄진 협력자들과 정신장애인들 간 자연스러운 대화는 정신장애인들의 긴장해소는 물론 봉사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되었다.

팀은 정리정돈, 세탁, 목욕보조, 산책보조, 식사보조, 말벗 등 봉사 과업에 따라서 정해졌으며, 주어

진 과업 외에도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기관에서 배웠던 무용을 활용하여 공연을 준비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참석하였다. 정신장애인들과 협력자들은 이미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팀워크에 무리는 없었다. 팀 내 업무분담은 협력자와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에서 정하되, 일단 정신장애인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자가 그 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협력자는 정신장애인봉사자의 활동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관찰될 때마다 “OO씨는 OO에 소질이 있네요.” “OO씨가 하고 나니 확 달라졌어요”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소극적인 봉사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저것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하실 수 있겠네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과업을 더 권장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변화 모습에 대해 역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봉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고맙다’, ‘수고가 많다’, ‘도움이 되었다’, 또는 ‘다음에 또 오라는 등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정신장애인은 협력자와 봉사대상자로부터 2중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효과가 있었고, 협력자는 정신장애인이 앞장서서 수행하는 과업을 보조하거나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능력을 새로이 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동불편 노인 목욕보조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많고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팀워크를 통해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기록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 때에는 지지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수행하던 역할을 융통성 있게 바꾸어 원하는 역할로 변화시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 중에는 훈련과정에서 보인 기능수준은 낮았으나 실제 봉사현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잘 웃지 않고 말수도 적었던 정신장애인이 장애아동을 보고 관심을 보이며 쓰다듬고 말은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훈련 세팅과 현장에서 보이는 기능수준의 차이는 훈련프로그램의 현실 적용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현장 활동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평가회에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으며, 자신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봉사활동의 종결 뿐 아니라 협력자들과의 이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힘들었거나 어려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보람이 더 컸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종결되었지만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정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협력자의 자체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거나 ‘정신장애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해서 놀라웠다’는 등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진행상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들이나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매스컴의 보도들을 간간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이에 대한 연구물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인 협력자를 활용한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논의점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정리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것으로서 첫째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가 자원봉사프로그램인 만큼 대상 정신장애인들의 참여의사가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권유와 격려를 통해 참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발성의 원칙이 고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 없이 결국 순수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자원봉사의 본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유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자원봉사자 선정은 어떤 객관적 척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가능성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에 위해서는 활동에 따라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의 요소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지, 이에 대한 사정기준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체 프로그램 중 실제 봉사활동은 총 4가 진행되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관의 사정 및 시행시기인 동절기의 활동여건 등 현실적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구조화한 결과였으나 봉사활동은 몇 회로 끝내기보다는 좀더 지속성을 갖고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단지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신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게도 유용하

1)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3. 11월 현재 서울삼성서울병원 낮병원, 충남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성애마을 등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에서는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 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후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여가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자원봉사자들이 처한 상황과 보유 기능에 따라서 협력자의 활용여부, 사전훈련 내용 등은 융통성 있게 조정해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서도 언급했듯이 협력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와 달리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단, 이 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활동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과정과 구체적인 가이드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효과성 측정 측면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은 관계로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비모수통계를 사용하였고, 봉사 협력자의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한 점들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정확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과 정확한 연구모형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양적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구체적 요소를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변화과정의 핵심요소를 도출해 내기 위한 질적 연구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 온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civil liability)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 진정한 임파워먼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권순기. 1998. "지체장애인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기태·이경희. 1998.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8: 143-189.
- 김기태·황성동·최승식·박봉길·최말옥. 2001. 『정신보건복지론』. 서울: 양서원.
- 김미옥. 2002a.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김미옥. 2003b.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요인 및 극복대안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138-167.
- 김명철·김한경·문진영·손규태·이가옥·이창호·정원오. 1995. 『이웃을 위한 젊음: 대학생사회봉사 핸드북』. 서울: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 김범수·권선진·손병돈·신승연·신은주·이종복·이혜경·최현미·정용충·정옥희. 2001.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류기형·남미애·박경일·홍봉선·이경희·장중탁. 1999.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 류승아. 2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경희. 199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서동명. 1999.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 개선방안". 김용득, 유동철 편. 『한국 장애인복지학』 1: 1-12.

- 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pp. 59-83.
- 양옥경. 1996.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울 : 나눔출판.
- 유동철. 1999. "장애인복지 이념의 동향". 김용득, 유동철 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pp. 15-57.
- 이윤화. 2003. 12. 12. "임파워먼트실천모델의 이해". 충남지역사회복지기관중사자 워크숍 자료집(미간행). pp.31-48.
-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주훈·이충순·황태연·한광수·이영문. 1996. "수서-일원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용인정신의학보』 3(2): 188-202.
- 임정기. 1999.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거주유형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최명민. 2002. "사회복지사 셀프-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개념 및 클라이언트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3-32.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자원활동 어떻게 시작할까요』.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Brockington, I. F., P. Hall, J. Levings, and C. Murphy. 1993. "The community's tolerance of mentally il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93-99.
- Canfield, J., M. V. Hansen, A. M. Oberst, J. T. Boal, L. Lagana, and T. Lagana. 2002. *Chicken Soup for the Volunteer's Soul*. Florida : Health Communications Inc.
- Ellison, M. L. 1996. *Empowerment and demedicalization in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Boston : Boston University Press.
- Kallert, T. W. and M. Leisse. 2001. "Schizophrenic patient' normative needs for community-based psychiatric care : an evaluative study throughout the year following hospital release in the Dresden reg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1-12.
- Penn, D. L., S. Kammana, M. Mansfield, and B. G. Link. 1999. "Dispelling the stigma of schizophrenia : The impact of information on dangerousness". *Schizophrenia Bulletin* 25(3): 437-446.
- Pinfold, Vanessa. 2000. "'Building up safe havens...all around the world' : user's experience of living in the community with mental health problems". *Health & Place* 6: 201-212.
- Roth, D., M. M. Anthony, K. L. Kerr, and F. Dowine. 2000.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in medical students : Does personal and professional experience with mental illness make a difference?". *Medical Education* 34(3): 234-236.
- Rousseau, A. and A. F. D'Man. 1998. "Authoritarian and socially restrictive attitudes toward mental patients in mental health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Psychological Reports* 83: 803-806.
- Solomon, B. B. 1976. "Black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1442-1465.
- Stein, C. H., M. Ward and D. A. Cislo. 1992. "The power of a place : Opening the college classroom to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4): 523-547.
- Wolff, G., S. Pathare, T. Craig, and J. Leff. 1996. "Community attitudes to mental illness and reaction to mental ill peop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2): 183-190.

## Empowerment Effects of the Chronic Mental Ill's Volunteer Program

Choi, Myung-Min  
(Cheon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ize volunteer program for the people with chronic mental health problems to participate in helping the community as service providers not receivers, and then to examine empowerment effects of this volunteer program.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is program was to volunteer the mental ill to help other people. Therefore, this volunteer program had specially strengthened preliminary stage which make not only the mental ill be ready to work but also the community to use them as volunteer, and to invite general citizen of the community as co-volunteers. The result showed this program empowered the mental disorders to have more positive self-concept. It revealed that co-volunteer's attitude toward the mental disorders was changed positively through this program, also. These results told us not only the chronic mental ill could be volunteers helping others using their abilities, but also this activity would make their self-image better and citizen's perception toward mental disorder less prejudiced. The volunteer program presented in this paper was expected to be useful for their empowerment and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 chronic mental ill, volunteer program, empowerment, attitude toward mental disorders

[접수일 2004. 3. 12. 게재확정일 2004. 6. 1.]